

## 滄江 金澤榮 中國 滯留期 漢詩의 一面

### — 중국인과의 交遊詩 중심으로 —

이 덕 향\*

< 目 次 >

- |                   |                 |
|-------------------|-----------------|
| I. 緒言             | 2. 생활주변 인물과의 교류 |
| II. 中國 滯留期 漢詩의 현황 | IV. 文學史的 意義     |
| III. 交遊詩의 形象化 양상  | V. 結言           |
| 1. 후원인 및 지식인과의 교류 |                 |

### <국문 초록>

본고는 창강 김택영이 중국 체류기에 지은 한시 작품 중 그의 중국 생활을 도운 후원인과 문인, 실생활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수창한 교유시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김택영은 한국 한시문학의 마지막 세대로서 유서 깊은 한국 한시의 전통을 계승하여 한문학의 명맥을 이어간 시인이다. 특히 그의 시세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문학이 몰락하는 시기 중국에 체류하는 상황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문집을 간행하였고 특별한 시대상황을 담은 것에 있다.

김택영은 나라의 패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달랐다. 그는 조선이 망하고 왜적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지자 결연히 나라를 떠나 사망할 때까지 중국에 체류하였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김택영은 자신의 문집과 역사서를 출간하고, 계속 시문을 지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인들과 교류하며 시를 수창한 사실은 김택영의 시문 창작 능력이 중국인과 대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김택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조선 문인들의 수준이 그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 공주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urimalgul@hotmail.com

김택영이 중국체류기에 지은 교유시는 작품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김택영을 후원하거나 교유한 문인은 장건, 장찰, 유월, 도기, 정효서, 비범구, 주진기 등이다. 김택영이 후원인이나 문인들과 수창한 교유시는 형식적으로는 교유시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진정한 인격적 만남과 신문물에 대한 인식, 끝내 동화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숙명 등이 드러나 있어 시세계의 깊이를 더했다는 점에서 김택영 문학의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실생활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과의 교유시는 김택영의 따스한 시선이 이웃을 향해 있었으며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시로 형상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교유시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었다. 이 영역의 작품들은 후견인이나 동료들과 수창한 작품보다 인간적 진실성이 더욱 드러나 있으며 그의 문학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김택영은 한국 한시문학사에서 특별한 한 영역이 되는 디아스포라문학을 남겨놓았다. 이 시기에 김택영이 창작한 한시는 한국한시문학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한국한문학의 국제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김택영, 교유시, 디아스포라, 비범구, 주진기

## I. 緒言

본고는 滄江 金澤榮(1850~1927)이 중국 체류기에 지은 한시 작품 중 중국생활에 도움을 준 후견인과 동료, 또는 생활 주변인물과 수창한 교유시를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김택영은 한국 한시문학의 마지막 세대로서 유서 깊은 한국 한시의 전통을 계승하여 한문학의 명맥을 이어간 시인이다. 특히 그의 시세계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문학이 쇠퇴하는 시기 중국에 체류하는 상황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문집을 간행하였고 특별한 시대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김택영은 특별히 관심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중국체류기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

다.<sup>1)</sup>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한 연구의 경우,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태이며, 연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일부 작품을 인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김택영의 중국 체류기 한시 전체를 분석·고찰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 현재 학계의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 아래 먼저 중국 문사들과 수창한 작품이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작품군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김택영은 조선의 몰락과 亡國을 직접 겪어야 했으므로 이러한 시대의 상흔이 그의 작품에 투영되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택영이 중국체류기에 창작한 한시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고찰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sup>2)</sup> 그가 중국에서 유민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귀향의지를 표현하였고, 중국에 귀화한 후에도 고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망국의 슬픔을

- 
- 1) 김시업, 「근대전환기 한문학의 세계인식과 민족적 자아」, 『대동문화연구』 제3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01; 김승룡, 「韓·中 知識人の 交流史 연구를 위하여」, 『中國史研究』 제29집, 중국사학회, 2004; 김동훈, 「김택영, 근대적 각성과 중국문인들의 영향」, 『한국문학연구』 제28권,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2005; 김진욱, 「망명 후 김택영의 세계관 연구: 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시가연구』 통권 제16호,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호광수, 「창강 김택영의 망명 한시에 나타난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2, 중국인문학회, 2006; 광미선, 「창강 김택영과 중국 지식인들의 교류·망명시기 한시에 나타난 중국지식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17권 제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광미선, 「김택영의 망명시기 문학 활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덕향, 「창강 김택영의 중국체류기 한시 고찰-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漢文學論集』 제44집, 근역한문학회, 2016; 楊雪, 「金澤榮의 중국 망명기 交遊詩 연구-장건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2) 김승룡, 「金澤榮의 松都 복원 작업의 의미-방법으로서의 디아스포라」, 『古典文學研究』 第29輯, 고전문학연구, 2006; 광미선, 「김택영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한국고전연구』 제20집, 2009; 광미선, 「김택영의 망명시기 문학활동 연구」,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이덕향, 「창강 김택영의 중국체류기 한시 고찰-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漢文學論集』 제44집, 근역한문학회, 2016

노래하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憂國과 哀傷의 시편을 발견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런데 중국체류기에 지은 그의 한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국·애상의 작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조선 선비의 志操,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시인으로서의 성향을 단절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지은 작품이 다수 있는 것도 분명하다. 한시 창작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살면서도 조선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의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수창한 작품들은 중국체류기의 한시 영역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 시기 김택영 한시의 실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택영의 중국 이주는 道가 없어지는 것을 참지 못해 몸이 도와 함께 보존하기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떠나가서 옛 것을 지켜야 한다는 ‘浮海去守’<sup>3)</sup>의 의지를 실현시킨 결과였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저항 방식 중의 하나로서 침략자들과 같이 살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한편으로는 동양문화권의 진원지인 중국으로 이주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희망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김택영의 망명 생활이 여타의 인물들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정식으로 중국에 歸化했다는 점이다. 1911년 辛亥革命으로 중국의 상황이 변하자 이듬해에 김택영은 ‘오늘의 처지에 직면하여 더욱더 중국의 編民이 되어 공화의 새로운 혜택을 입으면서 망국의 슬픔을 잊고 싶다.’라고 하며 조선의 遺民 중 유일하게 중국의 신민이 되었다.<sup>4)</sup> 그래서 그는 “통주는 이제부터 내 고향, 송도 같고 한양 같아라”<sup>5)</sup>라고 읊었듯이, 통주를 자신이 살았던 개성과 한양으로 동일시한다. 通州는 지금의 南通으로 상해에서

3) 이은영, 「20세기 초 유교지식인의 망명과 한문학-서간도 망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2.

4) 金澤榮 著,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역, 『김택영 한시』, 박이정출판사, 2013, p.16.

5)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乙巳稿」, 「四日至通州大生紗廠 贈張退翁觀察叔儼」, “通州從此屬吾鄉, 可似崧陽似漢陽”

양자강 북쪽 건너편에 있는 도시이다. 남통은 문화가 발달한 도시로 많은 문인과 학자를 배출하였고 김택영의 후원인이었던 張騫(1853~1926)이 지방자치 사업을 주도하여 당대에 저명한 학자와 문인들이 모였던 도시이다.<sup>6)</sup> 이곳에 정착한 그는 여생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타국의 나그네가 처음 밭을 붙이는 땅에 와서 이곳이 고향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김택영의 심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거주지를 고향으로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김택영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가 앞으로 만나야 할 것은 새로운 것들이므로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한다. “새것이 아니면 어찌 옛 것이 있으리오. 새것을 가며이 여기지 않아야 하리”<sup>7)</sup>라고 말하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김택영의 생각은 그가 23년간의 遺民生活을 별 탈 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중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고국의 사정에 관심을 등한히 하거나 조선인들과의 교류를 거부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러한 진취적 사고방식에 의해 그의 문학세계가 확충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 아래 김택영의 中國滯留期 漢詩 중에서 交遊詩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한계 상 이 시기에 조선 인물과의 교류 과정에서 지어진 작품들은 논외로 하였다. 이 시기 김택영이 지은 한시는 220題 382首와 賦 1首이다.<sup>8)</sup> 이는 양적인 면이나 작품의 완성도에서 볼 때, 김택영 漢詩文學의 精髓가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6) 楊雪, 上揭論文, 2017, p.2.

7) 金澤榮, 『韶濩堂詩集』 권4, 「丙午稿」, 「謝吳生見訪 吳卽乙巳至通州時 同宿於舟中者也」, “非新安有舊未可輕其新”

8) 金澤榮 저,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역, 『김택영 한시』,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5집』, 박이정출판사, 2013. 연변인민출판사에서는 김택영의 중국망명시를 번역하면서 「補遺編」에는 있는 「將赴庭試 渡臨津江作」, 「朝入彩霞洞」, 「送沈醒淵歸江陵」 등을 포함시켰는데, 이 3수는 중국체류기의 작품이 아니다.

관점에서 볼 때, 본고는 김택영 문학 연구라는 전체적 과제에서 중요한 일부를 검토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 Ⅱ. 中國 滯留期 漢詩의 현황

김택영의 문학은 시기적으로 修學期, 出仕期, 中國滯留期 등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시기는 나름대로의 특징과 의의가 있으나 원숙한 창작 능력이나 곤고한 배경 상황과 이를 문학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작품 창작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체류기에 창작한 작품에서 김택영 문학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김택영은 중국에서 체류하는 기간 23년 동안 14번이나 자신의 문집을 출판하였다.<sup>9)</sup> 이 중 전집의 형태를 지닌 문집은 여섯 차례 출간되었는데 사간본인 『合刊韶濩堂集』에 가장 많은 수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섯 간본 중에서 『合刊韶濩堂集』이 가장 거질이 된다.<sup>10)</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合刊韶濩堂集』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이주한 1905년 이후의 시작품을 분류하였다.

김택영은 전형적인 문인답게 중국에 체류하면서도 한시의 창작을 멈추지 않았다. 한시는 그에게 있어서 내면의 심사를 분출해 내는 통로이면서 일상의 필수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본 장에서는 김택영이 중국 체류기에 지은 시의 형식적 유형과 내용을 살펴본다. 따라서 乙巳稿에 수록된 작품 중 처음에 수록된 세 편의 작품, 즉 「奉和俞曲園先生 櫂」, 「尹總辦席上贈四川妓張瓊玉」, 「九月三日同纂輯所諸僚尹愚堂 李喬庭範世 鄭崙秀 李定儀 洪性斗 游駱山園亭」은 중

9) 최영옥, 「김택영 문집의 간행경위와 이본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0

10) 최영옥, 上揭論文, 2010, p.39.

국으로 이주하기 이전 창작한 작품이므로 분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먼저, 형식적 유형을 살펴본다. 김택영이 이 시기에 지은 한시를 형식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할 수 있다.

<표1> 五言絶句 시 분류표

창작 년도	시제	편 수	형식	인물
1905	六日 自漢城挈眷出仁川 將往清國上海 書別李茂才	3	五絶	이무재
1907	書徐淡廬扇	1	五絶	서담려
	余四十歲前 白川黃衣山人安聖文爲余算命 其後二三十年之間 所算皆中 而其曰晚境甚亂者 尤切中於今日之所遇 而安已死久矣 感而作此 兼以致悼	2	五絶	안성문
1909	李小湖曉芙蓉墳紹興回 爲言雪中過稽山眺矚甚樂 賦贈六首	6	五絶	이효부
1910	昨夜退翁宅 同菑翁會飯 菑翁指食物三種約賦 朝起見其投七絶三首 何其疾也 慚而急和	3	五絶	색용
1911	送屠翰林敬山歸武進	6	五絶	도경산
	謝退翁歲饋	3	五絶	퇴용
1915	蕉石山房 待主人歸	1 1	七絶 五絶	주진기
	題莊藝詩夫人所寫離騷經後	3	五絶	장번시부인
	徐氏梅花山館 贈塾師達繼聘	3	五絶	달계담
1916	晩夏 題水木明瑟亭 有懷菑翁參政 凡七首	7	五絶	색용
	淸道芮求詩文 作此二首塞之	2	五絶	
1918	以韶濩堂集寄贈外孫李賢在 因有述懷	3	五絶	이현재
	寄張順侯	3	五絶	장순후
	聞孫兒晶基 至錦州 喜賦	1	五絶	김정기
	雜贈翰墨林書局諸少友	4	五絶	왕세록 고정선 풍우서 태가문
1921	光鉉偕孫生應天至 喜而賦贈 并及孫生	2	五絶	광현 손용천

위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五言絶句의 형식을 갖는 작품은 17  
제 53수이다. 이 중 「蕉石山房 待主人歸」는 동일한 제목에 七言絶句와

五言絶句로 다른 형식의 시를 창작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七言絶句에 넣고 五言絶句는 시 작품 편수에만 숫자를 더하였다. 따라서 五言絶句 형식을 갖는 작품은 16제 53수로 집계하였다.

&lt;표2&gt; 五言律詩 시 분류표

창작 년도	시제	편 수	형식	인물
1906	月夜步河岸 懷江易園	1	五律	강겸
1907	伏聞皇上內禪 感賦	1	五律	
1909	贈宋躍門茂才	1	五律	송약문
1911	周晉奇約偕游狼山 余以脚步不良 不能應	1	五律	주진기
1913	送洪舜俞鄭景施金國珣三君之南京	1	五律	홍순유 외 2
	孫主事石渠挽	2	五律	손석거
1915	將歸南通 留贈歸甫	1	五律	도귀보
	雜贈常州同遊	3	七絶 七律 五律	동백장 장통백 이척운
	余往與屠歸甫呂博山諸人 訪唐荊川故居所謂半園者 今園主錢君 亦文士而適出未遇 諸人勸以一詩贈之故有作	1	五律	도귀보 여박산
1916	和齋翁林溪精舍詩	1	五律	색옹
1917	酬沙健菴翰林	2	五律	사건암
	次韻齋翁見贈	1	五律	색옹
1918	余長子光謙 既已繼伯兄 而去年又失少子光續 故謀嗣于三從弟士元 士元果以其第二子煥杓許之 余乃改其名曰光高 而字之曰景賚 盖庶幾其光顯我高祖之所大賚也 因寄士元以謝厚意	1	五律	삼중제 사원
	八月二十日 士元率光高至南通 志慶示光高	1	五律	사원
	寄贈寄園崔進士	1	五律	최기원
	寄贈從姪子德	1	五律	자덕
	爲劉弘遠 和其大人小心齋翁新築雙岩亭詩	1	五律	유홍원
1920	謝申總長 西曆新年之問	1	五律	신규식
	追謝雲南李公求拙著	1	五律	이승만

위의 <표2>를 통해 五言律詩의 작품은 18제 21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15년 「雜贈常州同遊」에는 五言律詩와 七言絶句, 七言律詩의 각 다

른 형식의 작품이 한 편씩 창작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첫 번째 작품인 七言絶句에 넣어 산술하였다.

七言絶句와 七言律詩로 지어진 작품 수는 위에 제시된 五言絶句와 五言律詩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七言絶句는 1905년 고국을 떠나오는 감회를 서술한 「九日發船作」부터 1922년 73세에 지은 작품으로 고국을 떠난 유민으로 살아간 고단한 삶에 오랜 기간 위로를 주었던 도경산을 위한 만사, 「屠敬山挽」 2수까지 71제 152수가 있다. 七言律詩는 중국으로 입국한 해인 1905년 상해에 있는 장건의 사업체인 大生紗廠 사무소에서 장건을 만나 먼 길을 떠난 자신의 상황과,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시국에 대한 근심 등을 읊은 「上海晤張奮菴修撰有贈」 2수부터 1922년 지은 「光鉉道其友李丹宇 卜居之佳 急人之美 且道其嗜玩拙著 感而有贈」까지 52제 78수가 있다. 이 밖에 고시체의 작품이 적지 않게 있는데 죽은 이를 애도하는 마음, 그리움과 감사, 객수와 망국의 한을 표출한 것을 볼 수 있다. 1905년 가을밤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들어가면서 느낀 감회를 읊은 「十月三日夜 自上海小東門 乘輪船入揚子江」에서 1920년 퇴옹이 새해 선물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謝退翁歲饋」까지 63제 78수의 작품이 있다.

이 내용을 분류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3> 中國 滯留期 漢詩의 형식 분류표

형식	五言絶句	五言律詩	七言絶句	七言律詩	고시체	합계
편수	16제 53수	18제 21수	71제 152수	52제 78수	63제 78수	220제 382수

위의 <표3>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김택영은 한시의 형식 중 七言絶句와 七言律詩를 선호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七言絶句의 경우, 한두 수에 그치기보다는 연작시가 많은데, 이것은 가슴 속의 회포를 곡진하게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즉 중국 체류기에 지은 김택영 한시의 형식 분류 결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형시의 경우 연작시가 많고, 또 고체시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작가의 내면에 쌓여 있는 수많은 감정을 보다 절실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긴 형식의 작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연회에 동참한 기생에게 준 시는 七言絶句이고,<sup>11)</sup> 어린 자식을 잃고 장례 지낼 땅에 대해 지은 시는 42句의 장편 고체이다.<sup>12)</sup> 이처럼 김택영은 창작의 상황에 따라 詩體를 선택하여 적절하게 심사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적 분류를 해 보았다. 한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작품 속에서도 유람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그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용적 분류는 연구자의 주관임을 밝힌다.

<표4> 中國 滯留期 漢詩의 內容 分類表

내용	교유		유람	이산인	가족	기타	합계
	중국	한국					
편수	121제 220수	40제 74수	11제 15수	18제 28수	14제 23수	16제 22수	220제 382수

위의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김택영이 중국 체류기에 지은 한시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4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유시를 들 수 있다. 김택영의 중국체류기 교유시는 조선의 인사들과 주고받은 시와 중국의 인사들과 수창한 작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 인사들과 나눈 교유시는 또 후원인 및 지식인과 수창한 것과 생활 주변인물과 교유하면서 지어준 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을 들 수 있다. 그는 조국

11)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戊申稿」, 「楊花園夜宴 題妓素秋扇」

12)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6, 「戊午稿」, 「金山生壙歌」

의 현실에 애통해했고 크고 작은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애간장을 토해 내는 심정으로 시를 썼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는 진정한 憂國詩人으로서 한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시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유람시에서 김택영의 특별한 문학성을 알 수 있다. 김택영은 중국의 여러 인사들에게 뛰어난 詩文 創作能力과 東洋 歷史 및 文化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인정받아 다양하게 교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비록 강남의 강소성 일대에 국한되지만, 여러 곳을 유람하면서 다양한 情懷를 표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깊은 家族愛가 드러난 작품을 들 수 있다. 김택영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시인으로 직계 가족은 물론, 친족의 회갑이나 손주의 탄생 등 작은 일상사에서 기쁨을 표현하거나 축원하는 내용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 김택영이 크게는 조국의 운명에 대해 고뇌하면서도 작게는 주변의 작은 것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시로 형상화한 천성적인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택영이 중국 체류기간 창작한 시작품을 네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과 나눈 交遊詩이다. 교유시를 살핌으로써 김택영의 중국에서의 삶이 어떠하였으며, 이산인으로서 살아가는 복잡한 내면의 정서 또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고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변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김택영의 인간적 모습을 새롭게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김택영이 한국한문학사에서 점유한 독특한 위치와 가치가 더욱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 Ⅲ. 交遊詩의 形象化 양상

김택영이 중국 체류기에 지은 한시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은 교

유시이다. 교유시는 김택영이 교제하던 당대의 중국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당시에 김택영이 처해 있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交遊詩가 갖는 意義는 ‘疏通’의 차원에서 극대화된다. 김택영은 중국에 있으면서도 끝내 중국어에 능통하지 못했으나, 그는 만나는 인물에게 교유시를 지어 소통함으로써 文人으로서, 知識人으로서 위상을 중국 지식인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교유시는 중국체류기의 문학 활동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유시는 김택영을 직접적으로 후원했던 자들과 그와 시문으로 교유했던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작품들이 한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일상생활 중 다양한 상황에서 만났던 중국인들과의 교제 중 발생한 인간관계를 시로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 교제를 나누었던 현장이나 그때의 정서 등도 충분히 고찰의 대상이 될 만하다.

본장에서는 이를 첫째, 후원인 및 지식인과의 교유, 둘째, 생활 주변 인물과의 교유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후원인 및 지식인과의 교유

김택영은 당시 조선 선비를 대표하는 文士답게 중국 체류기 내내 저명인사들과 교제하며 생활했다. 김택영과 시를 주고받은 중국인들은 대부분 김택영의 수준 높은 文學的 能力과 識見을 認定했으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들과의 교제 중에 지은 작품들이 중국체류기 한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挽曲園先生[곡원선생만시]』<sup>13)</sup>

13)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丁未稿」

…(上略)…

東韓小子昔何幸  
秋風一棹趨門牆  
感公耄病扶杖出  
峴然啓戶飛神光

조선의 후학 지난날 다행스럽게  
가을바람에 배 저어 문 앞에 이르렀네  
공께서 늙고 쇠약해도 직접 나오시니 감동하였고  
활짝 문 여니 신광이 휘날렸지

…(中略)…

羈踪匏繫苦難解  
一年隔水勞相望  
何來匈信忽到耳  
再撫往塵涕沾裳

나그네 신세 뒤웅박 같아 괴로움 해결하기 어렵고  
일 년 간 강 건너에 있으며 수고롭게 바라만 보았는데  
어찌 흉악한 소식 홀연 귀에 닿는고  
지난 일 다시 회상하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下略)…

김택영은 1905년 여름 兪樾(1821~1906)<sup>14)</sup>에게 편지를 보내어 교류하기 시작했고, 유월은 시 2수를 지어 보냈으며,<sup>15)</sup> 김택영은 중국에 건너 오기 직전에 유월에게 화운시를 보내어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sup>16)</sup> 김택영은 중국에서 맨 먼저 蘇州에 있던 유월을 찾았고, 유월은 김택영의 시문을 칭찬하고 김택영의 요청에 응하여 「韶濩堂集序」를 써서 보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연로하기 때문에 張謇(1853~1926)에게 의탁 하도록 권고하였다. 유월은 망명 초기에 김택영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유월은 김택영의 시문을 평가하면서 “시는 격률이 엄정하기가 당나라 사람들과 같으며, 구절의 조화가 맑고 새롭기가 송나라 사람들과 비슷하다. 내가 조선의 문장을 또한 일찍이 한 두 번 본 적이 있는데, 근과 같은 자는 조선 사람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상대할 자가 없을 것

14) 청나라 말기의 저명한 학자로 자는 蔭甫, 호는 曲園이며 저서로 『春在堂全書』가 있다.

15) 兪樾, 「韶濩堂集序」, “乙巳之夏, 有自韓國執訊而與余書者, 則金君子霖也. 書意殷拳, 推許甚厚, 余感其意, 賦詩二章贈之, 是歲九月, 君來見我於春在堂.”

16) 金澤榮, 『韶濩堂詩集』 권4, 「乙巳稿」, 「奉和兪曲園先生樾」, “耆舊中州已盡傾, 皇天遺一老先生, 春風書帶生庭好, 殘夜長庚配月明, 遠海幾回勞夢寐, 尺書難得罄衷情, 玄亭載酒他時約, 預囑陽侯送棹輕.”

이다.”<sup>17)</sup>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 김택영은 輓詩를 지어 유월을 조문했던 것이다.

김택영의 중국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과 영향을 준 인물이 張翥와 張謩 형제들이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김택영은 渡中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 형제와의 관계 유지가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장건이 세운 翰墨林印書局에서 편집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장건을 통해 시를 짓고 화답하는 연회에 참석하여 중국 문인과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넓혀갈 수 있었다. 또 김택영이 하고자 하는 역사서 출판과 자신의 문집 출판 또한 두 형제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김택영과 張謩(1853~1926)<sup>18)</sup>이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壬午軍亂이 발발한 1883년이다. 이때 장건은 吳長慶(1829~1884)의 종사관으로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雲養 金允植(1835~1922)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인해 김택영과 조우하였다. 김윤식을 통해 김택영의 詩稿를 읽어 본 장건은 ‘그의 문장은 즐박하고 진솔하여 시와 사에 만당의 기품과 운율이 있으니, 김윤식의 칭찬이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sup>19)</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여 년간 왕래가 없다가 뜻밖에 자신을 찾아온다는 편지를 받고, 처자식 3명을 데리고 온 초라한 행색의 김택영을 따뜻하게 맞이했다.<sup>20)</sup>

17) 俞樾, 『韶濩堂集序』, “詩則格律嚴整似唐人, 句調清新似宋人. 吾於東國詩文, 亦嘗略窺一二, 如君者殆東人之超羣絕倫者乎.”

18) 張謩(1853~1926)의 자는 季直, 호는 蒿菴으로 江蘇省 南通州 출신이며 33세에 順天府의 향시에서 급제한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1895년부터 남통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1899년 大生紗廠을 창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통에서 사업, 교육, 자선 각 방면의 일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활동을 주도했다.

19) 張謩, 『張季全集』(6), “他的文章拙朴率真, 詩詞更有晚唐氣韻, 參判稱贊并不過譽” pp.331-332.

20) 張謩, 『張季子九錄』, 「文錄」, 「金滄江刊紫霞詩集序」, “甲申旣歸, 遂與滄浪睽隔, 不通音問, 閱二十年, 忽得滄江書于海上, 將來就我, 已而果來, 并妻孕三人, 行李蕭然, 不滿一室.”

그리고 낯선 타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김택영은 장건의 시집에 대해 7언38구의 장편시를 지어 칭송했고,<sup>21)</sup> 몇 편의 和韻詩를 지음으로써 교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sup>22)</sup>

「上巳日 耆翁招飲觀萬流亭 既飲 令所建伶工學社童子數十人唱歌 作詩促和 歸後用其韻和之[상사일에 색옹이 술자리에 초대하여 만류정을 구경하고 술 마신 뒤에 그가 세운 영공학사의 동자 수십 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를 지어 화운을 재촉하였다. 돌아온 뒤에 그 시에 화운한다],<sup>23)</sup>

河心八角孤亭子	호수 안 팔각정 외로운 정자에서
與汝相遭又此辰	이 계절에 또 그대와 만나네
晴日似誇名節候	맑은 해는 마치 좋은 시절 자랑하는 듯
好花偏作老人春	고운 꽃은 지나치게 늙은이의 봄을 만드는 듯
靈童箇箇疑天藝	총명한 아이들 하나하나 하늘의 재주인가 의심스럽고
橫吹聲聲動水神	자유자재로 부르는 음악소리 물귀신을 놀라게 하네
詩令如何相厄甚	시 지으라는 명령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袂衣沾汗策衰身	겉옷이 땀에 젖고 쇠한 몸을 부축하였네

장건과 김택영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의 하나이다. 이 해 김택영은 71세였다. 上巳日을 맞아 장건은 친지들과 김택영을 초대하여 남공원의 만류정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장건은 이 자리에 자신이 건립한 伶公學社의 학생을 동원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데, 이 학교는 南通에 세운 중국 최초의 신식 예술학교였다. 김택영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성대한 모임에서 돌아 온 뒤에 장건의 시에 화운하였다. 계절은 봄날이고 총명한 아이들의 고운 재주를 보면서 시인은 세월이 지나고 또 봄이 와서 그대와 만났다고 읊는다. 어느 사이 일 년이 지

21)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丁未稿」, 「題耆翁詩卷」.

22)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6, 「丙辰稿」, 「和耆翁石壁仙人歌」, 「和耆翁林溪精舍詩」.

23)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6, 「庚申稿」.

나 또다시 봄을 맞으며 마주 앉아 있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감을 다시금 실감하며 자신의 늙어감을 생각하며 고운 꽃은 지나치게 늙은이의 봄을 만드는데 작자와 대조되는 어린 학생들의 음악소리는 물귀신도 놀라게 하는 힘이 있다. 頤聯에서 시인의 상기된 기분을 느낄 수 있고, 頸聯에 학생들이 단체로 노래하는 장면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시적 분위기를 提高하고 있다. 尾聯에서 보이는 시인의 모습은 ‘衰身’으로 표현되어 역동적인 ‘靈童’과 대조를 이룬다. 이 시기 김택영은 1918년 간행한 『韓史纂』에 기술한 내용으로 인해 조선의 유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 歷史書를 편찬하고 있었다. 연로한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주한 고국 儒林들의 비난은 심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건은 1916년 남통에 林溪精舍를 짓고 자신과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문사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김택영은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張庸(1868~1919), 沙元柄(1864~1927), 丁立棠(1861~1918) 등과 교류하였다. 또 김택영의 고희연과 장찰의 고희연을 통해 김택영은 南通에서 활동하는 많은 문사들과 시를 주고받고 友誼를 다져갈 수 있었다. 김택영이 詩文과 역사학자로서의 學識을 인정받아 지식인, 문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와 문을 주고받았고 김택영의 시가 중국 문단에 소개되는 계기도 되었다.

장건의 형인 張聳은 호가 退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김택영에게 도움을 주었다. 장찰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는 아니었지만, 타국 생활을 시작하는 김택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교제했던 인물이었다. 장찰도 임오군란 때 장건과 함께 조선에 왔었으니<sup>24)</sup> 이 둘 사이의 인연은 중국인 중에서 가장 길었고,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어진 작품이 김택영의 중국체류기 한시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24) 金澤榮, 『韶漫堂文集』 권15, 「自誌」, “光武帝十九年, 京師有軍亂, 清遣將來援, 南通張季直與其兄叔儼從之.”

『退翁餽食物八種 兼贈女兒女學士章服新制一襲 作此謝之[퇴옹이 음식 8가지와 딸아이의 여학생복 한 벌을 새로 지어 보내 이 시를 지어 사례한다],<sup>25)</sup>

退菴先生相贈心  
 唐家溪水千尺深  
 滄江居士不謝意  
 蠟梅無言鬢凍林  
 細君拆封紙  
 未下一箸先啓齒  
 稚女學穿衣  
 僊僊欲舞燈影裏  
 遂令兩老之襟裾  
 一時漏洩無遺餘  
 笑哉兒女智  
 古人宜不謀及渠

퇴옹선생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것이  
 당나라 왕가의 시냇물처럼 깊고 깊어라  
 창강거사 사례하지도 못하고  
 겨울 매화 말없이 언 숲에 어둑어둑하네  
 아내는 포장한 봉투 뜯으며  
 젓가락을 집기도 전에 먼저 입을 벌리고  
 어린 딸 옷 입는 법 배우는데  
 등불 아래 너울너울 춤추는 듯하네  
 마침내 두 노인 회포는  
 한꺼번에 누설되어 남김이 없으라  
 우습구나 아녀자의 지혜여  
 옛사람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네

중국에 도착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음식을 보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딸의 교복까지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손길을 느끼며 김택영은 감동한다. 이 작품은 장찰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의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 김택영의 창작능력을 입증한다. 제2련에서 한겨울에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비치고 있는 梅花는 그대로 詩人의 모습을 象徵하는 표현이다. 다음 연에서 묘사된 아내와 딸의 모습은 다분히 戲畵의이다. 음식 봉투를 뜯기도 전에 입을 벌리는 아내의 모습은 페이스스를 느끼기에 충분한 장면으로 김택영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 교복을 입어보며 즐거워하는 딸은 한편으로 안쓰러움을 유발하는 장면으로 독자에게 묘한 감동을 준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짐짓 아녀자의 도리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근엄한 선비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은 아내와 딸에게 그렇

25)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乙巳稿」

게 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謝退翁歲饋[퇴옹의 새해 선물에 감사하며]」<sup>26)</sup>

每臘老人饋老人	매년 설날마다 노인이 노인을 대접하니
今茲之饋人愈老	이번 선물로 사람들은 더욱 늙어가네
人愈老兮情愈深	사람 늙을수록 정도 또한 깊어지니
根荻爭奮河畔草	물가의 풀들이 다투어 뿌리내리 듯
書而嗅之頗芬香	편지 보내고 냄새 맡아보니 매우 향기로워라
大笑報道新詩好	크게 웃으며 새로 시 지어 보답하기 좋네

장찰의 나이는 김택영과 동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해 이들은 72세였으니 벌써 만난 지 15년 이상의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장찰은 어김없이 새해 선물을 보냈고, 그에 감사하는 김택영은 시를 지어 보답한다. 시에 별다른 기교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느낌 그대로의 표현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김택영의 시세계가 진정으로 노숙한 경지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장찰, 장건 형제는 김택영의 중국체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이다.

이외에도 김택영은 屠寄(1856~1921)<sup>27)</sup>, 鄭孝胥(1860~1938), 嚴復(1854~1921), 江謙(1876~1942), 周晉琦(1883~1920) 등의 문사와 교류하면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도기는 김택영이 1911년 중국에서 자신의 문집인 『滄江稿』를 최초로 출간할 때 비용을 대 주기도 한 인물<sup>28)</sup>로 김택영과 지속적으로 친교를 이어갔다. 도기가 고향인 常州로 돌아갈 때 김

26)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6, 「辛酉稿」

27) 屠寄(1856~1921)의 자는 敬山, 호는 結一宦主人으로 江蘇省 출신으로 청나라 말기의 사학가이며 교육가였다.

28) 金澤榮, 「合刊韶漢堂集序」, “余之著作, 爲武進屠敬山開城金允行所刊者.” 崔煥玉, 上揭論文, 2011, p.23.

택영은 시를 지어 전송했고,<sup>29)</sup> 도기는 상주에서 김택영을 초청하여 함께 그 지역을 유람하기도 했다.<sup>30)</sup> 다음의 시는 도기에 대한 輓詩이다.

「屠敬山挽[도경산 만시],<sup>31)</sup>

當年傾盖樂新知	그 해 찾아와 새로 알게 되어 즐거웠지
況是牙琴值子期	하물며 백아와 종자기 같았으랴
惹得傍觀驚欲倒	구경하던 자들 놀라 고꾸라지게 한 건
萬宜樓上劇談時	만의루 위에서 마음껏 이야기할 때
奎星匿彩玉揚灰	규성이 빛을 가리고 옥이 가루 날리자
凶信聞來失酒盃	흉한 소식 들려 술잔조차 놓쳤네
拙著傷心披不得	상심하여 내 책도 펼쳐 볼 수 없으랴
行間幾處見魂回	행간에선 몇 군데나 혼이 돌아오려나

萬宜樓는 청나라 말기의 大臣이었던 汪鳴鑾(1839~1907)의 藏書樓였다. 김택영과 도기가 처음 만난 곳이 도서가 가득 쌓인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부터가 이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은 ‘知音’의 고사를 연상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며 평생 교류하였다. 도기의 사망소식을 듣는 날 자신도 모르게 잡고 있던 술잔을 놓치는 김택영의 모습이 매우 사실감 넘치게 묘사되어 있다. 김택영은 도기의 도움을 받아 출간한 자신의 문집을 물끄러미 들여다 본다. 그러나 차마 책을 펼칠 엄두가 나지를 않는다. 책 속의 여러 곳에서 문득 도기의 숨결이 느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신분과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적인 교분을 나누었던 둘 사이의 우정은 김택영의 중국 생활을 지탱해 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29) 金澤榮, 『韶濩堂詩集』 권5, 「辛亥稿」, 「送屠翰林敬山 寄歸武進 六首」

30) 金澤榮, 『韶濩堂詩集』 권5, 「乙卯稿」, 「十八日, 赴屠歸甫招, 至常州, 明日同歸甫觀蘇東坡古宅」

31) 金澤榮, 『韶濩堂詩集』 권6, 「壬戌稿」

김택영이 살던 거처와 가까운 곳에 살아서 자주 필담을 나누었던 周晉琦와 절친하게 교류하였다. 晉琦는 周曾錦의 字이다. 주증금은 民國 10년(1921)에 『藏天室詩』를 간행하였다. 이 시집 이전에도 주증금은 詩稿를 편집한 일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김택영이 1916년에 서문을 지어 주었다.<sup>32)</sup> 김택영과 주증금은 나이차가 있었으나 허심탄회하게 교류했고 그와 수창한 작품이 7제 10수에 이른다.<sup>33)</sup>

「蕉石山房 周晉琦所居 夜飲[주진기가 거처하는 초석산방에서 밤에 술 마시며],<sup>34)</sup>

紅燈綠酒可憐宵  
筆墨魂還鄭板橋  
菊氣進來蘭氣退  
一簾秋籟正蕭蕭

붉은 등 푸른 술에 가련한 밤  
글씨는 정판교의 혼을 불러오네  
국화 기운은 나아오고 난초 기운은 물러가는데  
주렴에 가을바람 소리 정말 쓸쓸해라

주증금이 거처하는 곳에 마침 ‘蕉石山房’이라는 題額이 걸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 鄭板橋의 글씨이다. 정판교(鄭燮, 1693~1765)는 유명한 揚州八怪의 하나로서 그의 서예작품이 걸려 있다는 것은 주증금의 가문에 문화적 전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第一句에 ‘紅’과 ‘綠’의 색채 대비는 화려하지만 그것으로 전하는 정서는 ‘可憐’이다. 가을날 가련한 밤에 소슬하게 부는 바람에 주렴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蕭蕭’하다. 시의 전체적 분위기가 쓸쓸하기 그지없다. 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고 갔는가. 亡國의 遺民과 크게 이름을 날리지 못한 詩人은 깊은 가을밤에 마주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다만 괴기하다고 소문이 난 정판교

32) 金澤榮, 『韶護堂文集』 권3, 「周晉琦詩稿序」

33) 「訪周晉琦 不遇 留題」 2수, 「蕉石山房 夜飲」, 「周晉琦約偕游狼山 余以脚步不良 不能應」. 「蕉石山房 同晉琦夜飯 楊君穀孫亦在座 歸後有寄」 2수, 「再賦蕉石山房會飯事」, 「蕉石山房 待主人歸」 2수, 「哀周晉琦」

34)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4, 「己酉稿」

의 글씨가 이들의 심사를 대변하고 있다.

김택영의 三刊本 문집인 『精刊韶護堂集』의 출간에 도움을 준 費師洪(1887~1967)<sup>35)</sup>과 錢灝<sup>36)</sup>와의 교유 및 기증시도 빼 놓을 수 없다. 비사홍의 자는 知生, 또는 範九이며 법호는 慧茂居士이다. 州試에서 장원급제 하였으며 장건의 비서로 활동했다. 비사홍은 김택영에게 南通 費氏 족보의 서문을 부탁하기도 했다.<sup>37)</sup>

「酬費範九師洪見贈[범구 비사홍이 보내온 시에 수창하다]」<sup>38)</sup>

頽簷負疾對秋陽	무너진 처마 아래 병든 몸 가을 빛 대하노라니
何處吹來筆墨香	어디서 불어오나 필묵의 향기
黃鶴仙人家世古	황학루의 신선처럼 오래된 집안
白華詩什孝心長	백화시처럼 큰 효심
君有哀思錄故云	군이 애사록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虛聲自愧驢鳴野	들에서 우는 나귀처럼 헛된 명성 스스로 부끄럽고
嘉彩懸知鳳在岡	언덕 위 봉황의 아름다운 빛깔 분명히 알겠네
大樂鈞韶瘖已久	대악과 군소가 어두워진지 오래 되었으니
憑誰細意譜宮商	누구의 세심한 뜻 의지하여 음악을 연주할까

나이로 보아 한 세대가 차이 나는 관계인데도 이에 개의치 않고 김택영은 비사홍과 시를 수창하며 교유를 유지했다. 비사홍이 보낸 시를 받아들고 김택영은 감회에 젖어 화운시를 짓는다. 노쇠한 몸으로 가을

35) 費師洪(1887~1967)은 자가 知生, 호는 範九이고 南通 사람이다. 고승 인광 법사의 제자로 범호가 혜술이어서 혜술거사, 혜술노인으로 불린다. 장건을 따라 남통의 자치사업에 동참했다. 상해에서 상무인서관에 근무하면서 남통의 문화유산에 관한 책을 다수 출판하였다. 1917년 경 김택영과 만나 교유하였으며 김택영의 문집 『소호당속집』(1919), 『정간소호당집』(1920), 『중편소호당집정』(1924) 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36) 崔煥玉, 上揭論文, 2011, p.25.

37)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3, 「南通費氏譜序」

38) 金澤榮, 『韶護堂詩集』 권6, 「丁巳稿」

햇볕을 쬐고 있던 시인은 시 한 수를 전해 받고 시를 보내준 상대방을 추억한다. 그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효성도 지극한 사람이다. 頤聯에 나오는 白華는 『詩經』 「小雅」의 편명으로 현재는 곡조만 남아 있고 시는 전하지 않는 佚詩인데, 효자의 결백함을 노래한 것이다.<sup>39)</sup> 문득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다보니 일말의 자괴감이 든다. 庾信의 고사에서 유래한 ‘驢鳴野’는 김택영이 자신을 낮추어 말한 것이고 ‘언덕 위 아름다운 봉황의 깃털’은 비사홍을 칭송하는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교제의 현장에서 즐겨 쓰는 관용적 행위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의 김택영은 스스로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저절로 나온 짧은 탄식일 것이다. 大樂은 고대의 제왕이 종묘사직의 제사나 궁중의 잔치에서 사용하던 음악이고 鈞韶는 천상의 음악을 말하는데, 이미 이런 음악은 사라지고 없어 연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당시 중국이나 조선이나 전통적인 가치와 생활방식이 무너지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비사홍 같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김택영의 간절한 바람이 尾聯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 시는 고사를 인용하고 詩語도 어려운 것이 많아 김택영 한시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전호의 자는 浩哉이고 비사홍의 동료로서 김택영이 만년에 만났으므로 나이 차이가 많았다.

『贈錢浩哉[전호재에게 주다]』<sup>40)</sup>

四海彷徨覓俊英  
何期七十得錢生  
孤兒堪托朱文季  
死友誰如范巨卿  
窮巷高車頗有響  
鬢樓芳醕尙餘醒

세상 돌아다니며 인재를 찾았는데  
칠십에 전생을 만날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오  
외로운 아이를 맡길 만한 주문계 같고  
죽어도 변치 않을 친구는 누가 범거경 같으리오  
스산한 골목에 높은 수레 타고 여러 번 찾아왔고  
학교에서 마신 좋은 술 아직 깨지도 않았네

39) 『毛詩序』, “白華孝子之絮白也.”

40)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6, 「戊午稿」

蒲塘端午同舟約  
預喜村盤上赤櫻

단오날 포당에서 뱃놀이하자는 약속  
쟁반 위 붉은 앵두를 미리 기뻐하네

늦은 나이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 만남은 나이를 초월한다. 이 두 사람은 나이차를 초월한 깊은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頷聯의 표현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 朱文季는 한나라 때의 朱暉로, 친구 張堪이 죽자 그의 처자를 극진히 보살피며 ‘朱暉許堪’의 고사를 만든 인물이다.(『後漢書』卷43 朱暉傳) 范巨卿은 한나라 때의 范式을 말하는데, 범식은 ‘巨卿之信’이라는 고사의 주인공으로 2천리나 떨어져 있는 친구를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킨 인물이다. 김택영이 주희와 범식의 고사까지 인용한 것은 의미가 있는 표현으로 전호와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김택영은 점차 노쇠해져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사후에 이국땅에 남아 살아가야만 하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을 돌봐 줄 만한 사람으로 전호에게 많은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관계는 김택영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전호가 김택영을 지원하는 형편이었다. 김택영이 72세 때 전호재가 쌀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여 지은 「謝錢浩載餽米」<sup>41)</sup>라는 작품도 이러한 과정에서 지어졌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은 매우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일신했다. 아마 전호가 초여름의 뱃놀이를 제안했을 것인데, 김택영은 미리 그날 먹을지도 모르는 붉은 앵두를 머리에 떠올린다. 앵두의 붉은 색이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와 시를 마무리한다. 이런 나이에 아직도 붉은 앵두를 그릴 수 있는 김택영은 천생의 시인이다.

이밖에도 근대사상을 가진 지식인으로 김택영의 근대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嚴復(1854~1921)<sup>42)</sup>과 주고받은 시로 「贈嚴幾道」와 「寄嚴幾道

41)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6, 「辛酉稿」

42) 엄복(1854~1921)의 자는 幾道이고, 청말 민국 초기의 사상가로 청일전쟁 이후 「原強」 등 개혁론을 주장하는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고, 토마스 허슬리

」 2제 6수가 있다. 엄복은 김택영과 여러 작품을 수창한 인물로 김택영의 문학적 능력을 인정하였으며 김택영에게 ‘대동강은 물결이 차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마시라.(涓水波寒莫更東)<sup>43)</sup>’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를 許與하는 사이였다. 또 근대의 정치가이며, 서법가로서 시인으로서도 이름 있는 蘇堪 鄭孝胥(1860~1938)와 교류하면서 지은 시로는 「寄鄭蘇堪 孝胥」 1수와 「寄蘇堪爲文壽峰崔寄園乞字」 2수가 있다. 「寄鄭蘇堪 孝胥」에서 ‘延津劍合’ 고사를 들어 두 사람의 다시 만난 인연을 묘사하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였다. 이외에 장건의 제자로 교육가로서 남통의 通州師範學校長이었던 江謙과 교류한 시 「月夜步河岸 懷江易園謙」도 있다. 강겸의 자는 易圓 호는 陽復이다. 달밤에 강둑을 걷다 그가 생각나서 지었다는 시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그만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김택영의 한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문학적 완성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중국의 저명인사들과 수창한 작품들은 망명시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택영은 자신의 창작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작품들이 중국인들에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택영의 한시가 중국의 문사들과 비등한 경지에 올라 있음을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2. 생활 주변인물과의 교류

김택영은 儒學者요 歷史學者로서 중국에서 당대에 유명한 학자, 지식인들과 교류하였고 그 교류의 정회를 시를 통해 표현하여 교류의 폭과 깊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고국에서의 첫만남에서 문장을 인정한 관계로 편지왕래를 하였고, 중국으로 이주한 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였

의 『進化와 倫理』, 몽테스키외의 『法意』 등 서양의 근대 사상을 소개하는 번역서를 다수 발표한 신식 지식인이었다.

43)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己酉稿」, 「附屠寄和詩」

던 장건이 당시 남통에서 정치와 경제 부분을 주도하는 인물이어서 김택영의 교유의 폭 또한 넓었고 더하여 김택영의 문장이 인정을 받아 더 깊이있는 교제를 펼쳐 나갔음을 확인하였다.

김택영은 자신과 교유하는 사람들과 필담을 하는 중 고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sup>44)</sup> 시인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깊이 있게 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인물로 그와 같은 면은 나라에 관한 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 면까지 이어져 주변의 사람들과 나눈 인간미 넘치는 교유의 모습 역시 그가 남긴 시작품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김택영의 문인으로서의 역량을 감안할 때, 그가 중국의 저명인사들과 교유시를 수창한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시를 살펴보면 후원인과 지식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난 주변 인물에 대해 지은 작품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시인으로서 김택영의 시선이 주변의 여러 곳에 두루 미치고 있는 것과, 그가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일상생활 중 주변인물과의 교유시는 중국체류기 김택영의 한시에 있어서 소홀하게 볼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며, 그의 인간적 면모와 시인으로서의 세심한 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군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은 혹 시라도 도식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는 교유시의 한계를 확충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揚州陸生景騫有詩才 以貧廢著于通州 而猶不廢吟 間來見余以月餅八爲贄 遂就月餅 賦四言詩以贈之[양주의 육경건 군은 시 짓는 재주가 있는데 통주에서도 이름난 가난뱅이였음에도 오히려 시 읊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근간에 나를 보러 오면서 월병 8개를 선물로 가져왔으므로 월병으로 사인시를 지어 주다.]』<sup>45)</sup>

44) 楊雪, 上揭論文, 2017, p.23.

45)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庚戌稿」

完完月餅	동글동글 월병
君手自出	그대 손수 빚었나
君出以餅	그대는 떡을 주었으나
我取以月 一解	난 달로 받소이다
以餅食餅	떡이라고 월병 먹으면
嚼便竭焉	먹어 없어지지만
以月食餅	달로 생각하고 먹으면
恒明恒圓 二解	달처럼 언제나 밝고 동글다네
明者是神	밝은 건 정신이고
圓者是魄	둥근 건 녀일세
神魄兩全	정신과 녀 다 갖추어지면
道之攸宅 三解	도가 자리잡겠지
君惟市隱	그대는 다만 저자에 숨어살아도
所好近道	좋아하는 건 도에 가깝도다
爰提斯義	이제 이 뜻 일으켜
助開厥腦 四解	그대 마음 도와 열겠네

위의 시에 등장하는 陸景騫도 장건과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인물로 추정된다. 육경건을 이름난 가난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분히 戲畫的이지만 그가 김택영을 방문하며 월병 8개를 폐백으로 가져오는 장면은 人間的인 憐憫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가난하여 어려운 살림의 힘겨움을 겪고 있는 김택영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시를 지어 축원하였다. 月餅이라는 음식물과 달을 比喩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주목되며, 상대방이 달처럼 圓滿한 人格을 갖춘 인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시인의 따뜻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謝吳生見訪 吳卽乙巳至通州時 同宿於舟中者也[오생의 방문에 감사하다. 오생은 바로 을사년에 통주에 올 때 함께 배에 묵었던 사람이다]』<sup>46)</sup>

我昔挈妻子	지난 날 처자식 데리고
夜渡揚子津	밤에 양자강을 건널 때
得君共一舸	그대와 한 배를 탔지
有似通家親	온 집안이 친한 것 같았고
平明各相別	아침 되자 헤어져
飄若風中塵	풍진 세상에 흩어졌지
豈意此剝啄	이렇게 문두드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殷勤復殷勤	반갑고 반가워라
…(中略)…	
我家東北隅	우리 집 동북 모퉁이는
高柳蔭河身	높다란 버드나무에 강가에 그림자 저서
君舟可以繫	그대 배 뱃수 있으니
勿憚來頻頻	거리낌 없이 자주 오시게

이름도 전하지 않는 吳生은 김택영이 가족을 데리고 중국에 건너와 양자강을 건널 때 배에 동승했던 사람이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 인연밖에 없지만 그를 찾아온 오생에게 시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환대한다. 한편으로 오생에게 자주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은 김택영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택영이 원래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있던 시인이었으므로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이처럼 다정한 마음을 표출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택영 문학의 眞率한 一面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김택영은 본의 아닌 실수로 중국인들의 禁忌를 범하여 絶交를 당하기도 했다.

『余居通州數年 而衰朽之故 不能通語 尤昧於俗忌 嘗與一老人筆談 犯其忌 老

46) 金澤榮, 『韶漫堂詩集』 권4, 「丙午稿」

人怒而絕之 及老人沒 其子請挽 作此應之[내가 통주에서 산 지가 몇 년이 되었으나 쇠약해진 까닭에 말이 통하지 않았고 더욱 세상 사람들이 금기로 여기는 바에 어두웠다. 일찍이 어떤 노인과 필담을 하다가 금기를 범하여 노인이 화를 내며 절교하였다. 노인이 죽자 그 아들이 만시를 청하므로 지어준다.]<sup>47)</sup>

我嘗得罪於碧翁  
 罡風一日辭瑤宮  
 衆人呼牛或呼馬  
 卑田地獄纏繞叢  
 肉身解脫苦無術  
 幾回哀乞東園公  
 君憐示以絕交法  
 苦苦如啖三尸蟲  
 使我超入不二門  
 懸崖撒手誇英雄  
 君今大歸亦此法  
 絕交絕生其義同  
 寄語世人莫漫吊  
 一聲霹靂棺應空

나는 일찍이 벽옹에게 죄를 지어  
 모진 바람 부는 어느 날 요궁에서 물러났네  
 세상 사람들은 소네 말이네 하고  
 빈궁한 백성들은 지옥에 매여 번잡하구나  
 육신의 해탈에는 방법이 없어 괴로워  
 몇 번이나 동원공에게 애걸하였던가  
 그대는 불쌍히 여겨 절교법을 보여주니  
 괴롭기가 마치 삼시충을 씹는 듯하네  
 나로 하여금 불이문에 들어오게 하여  
 벼랑 끝에서 손을 거두어 영웅을 자랑하네  
 그대가 지금 돌아감도 또한 이 법이니  
 절교와 절생은 그 뜻이 같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무 슬퍼말라  
 벼락 소리 한번 울리면 관속도 비어 있으리라

김택영이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끝까지 중국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타국에 망명한 조선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인가? 언어 습득 능력이 부족한 탓일까? 후자의 경우는, 김택영의 지적 수준과 방대한 저술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아무튼 碧翁이라는 인물과 筆談으로 대화하다가 중국인이 금기로 여기는 사항에 저촉되는 일이 있어 절교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중국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벽옹의 아들이 김택영에게 만시를 요청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김택영은 자신에게 절교를 선언했던 이웃집 노인의 죽음 앞에 삶과

47)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4, 「己酉稿」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하고 삶에 대한 생각의 일면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모진 바람 속에 瑤宮에서 물러나온 것이고 貧窮한 百姓의 삶은 地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번잡하게 살아간다. 戰亂을 피해 隱居한 東園公에게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구하였다. 인간세상에서 생긴 모든 욕심(三尸蟲)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간다. 어쩌면 이웃집 노인의 절교가 김택영에게는 큰 고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귀를 끊는 것과 생을 마감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같다고 하며 부모를 잃은 젊은이를 포함하여 세상사람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국땅에서 유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과 이웃에게 받은 절교의 상흔, 절생의 고통 모두를 감싸 안는 시인의 온화하고 넓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

「石又新 邵大樗二少年 攻詩之暇, 共學琴於徐立孫, 一日相與携琴過余, 各操一二弄, 作此謝之[석우신과 소대저 두 소년이 시를 배우는 여가에 서입손에게 함께 거문고를 배웠는데 하루는 같이 거문고를 가지고 나를 찾아와 한 두 곡조를 연주하였으므로 이 시를 지어 감사한다],<sup>48)</sup>

翩翩二妙共携琴  
奏曲工於女手纖  
欲報哀腸詩已涸  
天河安肯與濡沾

씩씩한 두 소년 함께 거문고 가지고  
한 곡조 연주하는데 섬섬옥수 여인네보다 잘하네  
보답하고자 해도 늙은 몸 시도 이미 메말라  
은하수 어찌하여 함께 젖어드나

71세의 김택영에게 거문고를 연주하여 들려주는 이 소년들은 그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하다. 시의 제목으로 추측하면 시를 배우는 것으로 보인다. 石又新은 石重光이고 邵大樗는 邵森이다. 이들이 거문고를 배우는 선생인 徐立孫은 남통사범학교에서 일한 문인, 학자인 徐昂의 동생으로, 유명한 가야금 연주자이다.<sup>49)</sup> 아직은 서툰 거문고 솜

48)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6, 「庚申稿」

49) 楊雪, 上揭論文, 2017, p.116.

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려줄 수 있는 이 소년들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듣고 시를 지어주는 김택영의 모습이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으로 남게 하는 작품이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두 소년의 ‘翩翩’함과 자신을 위해 연주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고자 하나 ‘衰腸’한 시인은 시의 정서가 메말랐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結句를 보면 그 연주하는 곡조와 더불어 은하수에 젖어들만큼 좋은 시로 보답할 수 없다고 겸양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은하수에 닿을 만큼의 자부심을 은근히 드러내는 듯하다.

『楊花園夜宴 題妓素秋扇[양화원에서 밤에 잔치하다가 기생 소추의 부채에 시를 써 주다]』<sup>50)</sup>

倏忽青春變素秋  
流光不貸最紅樓  
娘家已領秋風味  
可有秋來再作愁

문득 청춘이 변하여 가을이 되니  
흐르는 세월은 최고 기생도 기다리지 않네  
그대에게 이미 가을 맛이 들었으니  
가을 오면 다시 시름이 생기겠지

양화원의 주연에 참여했던 김택영이 그 자리에 있던 기생 素秋에게 준 시다. 기생의 이름과 가을이라는 계절을 어울리게 묘사한 구성이 뛰어나다. 여기에 노년의 김택영의 심사를 엿볼 수 있는데 가을이 가까이 와서 시름에 빠질 사람이 기생 소추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시인의 쓸쓸한 심사를 느낄 수 있다.

조선의 사대부에게 주석에 동참한 기녀에게 시를 지어 주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행위가 중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김택영이 시인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김택영이 중국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저명인사나 무명인사들에게 지어준 교류시는 김택영이 중국체류기에 지은 작품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50) 金澤榮, 『韶漫堂詩集』 권4, 「戊申稿」

있으며, 이 작품들의 문학성도 뛰어나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유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에게 그리운 마음을 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교유의 현장에서 주고받음으로써 생동감이 살아 있는 예도 많다.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은 현장감이 넘치고 시인 또한 즉각적인 감정의 발로를 숨기지 않기 때문에 고유의 문학적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다.

「同屠敬山赴莊茂之菊花大會之招[도경산과 함께 장무지의 국화모임에 초대되어],<sup>51)</sup>

翁心厭聞亂世事  
假聾遂以成真聾  
我衰未操中國語  
與彼啞者將無同  
啞聾相遭亦奇矣  
菊花有意開西風  
知翁愛菊世無比  
好客又過陳孟公  
鼓張叢詞頌菊德  
琵琶聲裏樽酒紅  
風前一時動枯蝶  
天外幾陣停歸鴻  
日夕香露流滿座  
爲君舞喚陶家翁

그대 어지러운 세상일 듣기 싫어  
귀머거리인 체하다가 진짜 귀머거리 되었네  
난 늙고 중국말도 못하니  
저 병어리와 같지 않은가  
병어리와 귀머거리 서로 만나니 또한 기이하고  
국화는 뜻 있어 하늬바람에 피네  
그대 알고보니 세상 더없이 국화 좋아하고  
손님 좋아하기는 진맹공보다 더하다네  
좋은 구절 모아 국화의 덕 칭송했고  
비파소리에 술은 붉어라  
바람 불자 한꺼번에 마른 나비 날고  
하늘가엔 돌아오던 기러기 무리 몇 개  
해질녘 자리 가득 향기로운 이슬 내리니  
그대 위해 춤추며 도연명을 부르네

김택영이 도기와 교유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넓혀갔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상주로 낙향한 도기는 김택영을 상주로 초청하여 명승고적을 유람하였다. 이 기간 중 어느 날 장무지라는 사람의 정원에

51) 金澤榮, 『韶漢堂詩集』 권5, 「乙卯稿」

초대받아 국화를 감상하는 모임이 있었고 김택영은 기꺼이 참석하여 시를 지었다.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자신과 말을 듣지 못하는 장무지는 겉으로는 다르지만 속으로는 서로 통하는 특별한 유대감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서로 국화를 좋아한다는 점도 이 유대감을 증폭시킨다.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하므로 국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역설을 이해할 것 같다. 마지막 연에서 저물도록 가을 국화 흥에 겨워 저녁 이슬을 맞으며 춤을 추는 시인의 모습에서 安重根 의사가 伊藤博文을 저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화 옆에서 미친 듯이 춤추며 노래하네(狂歌亂舞菊花傍)<sup>52)</sup>’라고 한 장면이 떠오른다.

김택영의 중국체류기 한시에는 구체적인 교제의 현상이 나타나 있어 실감을 더해 준다. 교유시에서 간혹 도식적인 구성이나 상투적인 표현을 느낄 수 있는데, 김택영의 교유시는 교제를 나누는 현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더욱 문학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처럼 김택영이 중국 체류기에 지은 교유시는 작품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저명인사와 수창한 교유시는 교유시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어, 중국인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文名을 확인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명인사와의 교유시는 김택영의 실생활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었다. 어려운 살림 중 자신에게 월병을 선물로 가져온 이에게 그 정성을 알기에 감사와 함께 따뜻하게 축원을 하는 모습과 절교를 선언한 이웃노인의 죽음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를 통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위로하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따스한 시선을 읽을 수 있다. 그로 인해 교유시의 영역이 폭 넓게 확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유의 현장에서 주고받은 교유시는 김택영의 심사가 자연스럽게 발로되어 그의 문학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52) 金澤榮, 『韶漫堂詩集』 권4, 「己酉稿」, 「聞義兵將安重根報國讞事」

#### IV. 文學史的 意義

김택영의 선택은 개인적으로 삶 자체가 송두리 채 흔들리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김택영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조선의 문단을 떠난 것이므로 문학적 배경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는 한국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김택영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수행한 문집 및 역사서의 간행과 그가 지은 수많은 시문, 특히 한시의 지속적인 창작은 김택영 이전 한문학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그의 창작활동은 한국한문학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김택영이 주로 중국의 문사나 관련 인물과 주고받은 시편은 김택영 문학만의 의의에서 벗어나 한국한문학의 영역을 더 확장하는 결과를 얻어냈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도 외국인과의 수창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주로 중국 使行이나 중국의 使臣이 내한했을 때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도 대부분 기행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김택영은 23년간이나 중국에 체류하면서 창작에 임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경지를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한문학의 국제화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제와 소재의 차원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김택영 한시의 주제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디아스포라로서 憂國과 望鄉의 탄식이 없지는 않으나 이를 극복하고 주제를 확장시켰다. 주제 확장의 경우 당시의 조선과 중국이 열강의 제국주의에 희생되어 국가적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同質感을 들 수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하고자 노력하면서도 신문물을 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時代的 自覺을 들 수 있고, 한편으로 끝내 동화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의 한계 노출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의 창작은 김택영

이 조선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를 수 없는 것이었다. 역설적이지만, 김택영의 중국 체류는 김택영 자신에게는 원하지 않았던 비극적 상황이었겠지만 한국한문학의 차원에서 보면 질량 면에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을 후원했던 중국인과의 수창시는 사실 내용상 전형적인 구성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중국지식인과 교류를 통해 김택영의 지적 문화적 수준이 인정을 받고 그의 작품이 중국인의 문집에 소개됨으로써 한국한문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만난 중국인들에게 지어준 시편들은 다정다감하고 진솔한 시인 김택영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택영의 문학은 여기에서 더욱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재의 측면에서 조선에서 체험하는 범위를 벗어나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과의 수창시에는 조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재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 강남의 명승지이다. 조선에 거주하면서 강남을 잠시 유람한 기행시가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면서 중국인들과 어울려 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장한 특별한 명승지는 작품의 현실감을 배가시킴으로써 문학적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묘사도 이국적 풍치와 은근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끝내 중국어를 습득하지 못했던 김택영의 모습, 문화적 차이로 절교를 당한 경험, 또 가난뱅이라 불리는 아는 중국인이 가져온 월병 같은 음식물 등이 시의 소재로 사용되면서 시의 내용이 확장되고 한편으로 인간적 공감을 넓혀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김택영이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지은 중국인과의 교류시는 한국의 한시 문학이 중국의 그것과 대등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입증했다는 중요한 가치와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한시는 한국한문학의 지평을 확충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전에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의의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 V. 結言

본고는 창강 김택영이 중국에서 23년 동안 살면서 지은 한시 중에서 중국에서 만나 그를 도운 후견인·지식인들이나 주변의 인물들과 수창한 교유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찰한 결과이다. 먼저, 연구의 한계상 조선의 인물과 수창한 작품은 제외하고 중국인들과의 교유시만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김택영은 나라의 패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달랐다. 그는 조선이 망하고 倭夷가 나라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지자 단연히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대상 국가는 유학의 도가 쇠하지 않은 중국으로 결정하였고 시문으로 서로 인정하는 관계였던 장건 형제의 도움을 받아 남통에 정착하였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도 김택영은 자신의 문집과 역사서를 출간하고, 계속 시문을 지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인들과 교유하며 시를 수창한 사실은 김택영의 시문 창작 능력이 중국인과 대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김택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조선 문인들의 수준이 그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김택영이 중국체류기에 지은 교유시는 작품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장건, 장찰, 도기 등 후견인이나 지식인 문사들과 수창한 교유시는 형식적으로는 교유시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진정한 인격적 만남과 신문물에 대한 인식, 끝내 동화될 수 없는 디아스포라로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느끼는 쓸쓸함,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상의 실현을 지향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 시세계의 깊이를 더해 김택영 문학의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실생활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과의 교유시는 김택영의 따스한 시선이 이웃을 향해 있었으며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를 시로 형상화하여 교유시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었다. 가난한 형편에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온 이에 대한 감사와 절교를 당한 상흔을 뒤로 하고 그 아들의 요청에 만사를 지어주며 위로하는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국땅에서 늙어가는 자신을 자각하며 아름다운 음악과 춤사위를 보고도 아름다움에만 빠져들지 못하고 쓸쓸한 정서를 시로 남겼다. 김택영의 인간적 진실성이 잘 드러나 있으며 그의 문학적 감수성을 구절구절에서 느낄 수 있다.

김택영은 우리역사에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고난의 시기에 그 역사의 폭풍우 속에서 유학자, 역사가로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중국으로 이주하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해 한국 한시문학사에 디아스포라문학을 남겨놓았다. 한문학이 쇠퇴하는 시기에 21권 8책에 달하는 개인문집을 남김으로써 풍성한 양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더하여 작품의 수준이 김택영과 교유한 당대 중국 문인들로부터 시에 담긴 높은 품격으로 인정을 받아 한국한문학을 중국에 전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 시기에 김택영이 창작한 한시는 한국한시문학의 지평을 확대했으며, 한국한문학의 국제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金澤榮, 『合刊韶護堂集』, 南通翰墨林印書局, 1922.
-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편, 『金澤榮』, 보고서, 1990.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金澤榮全集』,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 곽미선, 「김택영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韓國古典研究』 20, 韓國古典研究學會, 2009.
- \_\_\_\_\_, 「김택영의 한시를 통해 본 망명 전후 의식세계의 변모」, 『열상고전연구』 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 \_\_\_\_\_, 「滄江 金澤榮과 중국 지식인들의 교류 - 망명시기 한시에 나타난 중국지식인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 \_\_\_\_\_, 「김택영의 망명시기 문학 활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권오돈, 「近朝 漢文學에 대한 考察」, 『인문과학』 5,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1960.
- 김동훈, 「김택영, 근대적 작성과 중국문인들의 영향」, 『韓國文學研究』 28, 東國大學校韓國文學研究所, 2005.
- 김민학, 「중국 망명 시기 창강 김택영의 출판활동과 그 의의 - 『文墨萃編』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56, 한국한문학회, 2014.
- 김승룡, 「김택영의 송도 복원 작업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9, 월인, 2006.
- \_\_\_\_\_, 「창강 김택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5, 한국인물사연구회, 2006.
- \_\_\_\_\_, 「송도의 기억과 문학적 상상의 지향 : 『송양기구시집』에 대한 소고」, 『東洋漢文學研究』 40, 東洋漢文學會, 2015.
- 김진욱, 「망명 후 김택영의 세계관 연구 : 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시가연구』 16, 한국고시기문학회, 2005.
- 노관범, 「1910년대 한국 유교지식인의 중국 인식 : 柳麟錫, 朴殷植, 李炳憲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40, 한국고전번역원, 2012.
- 민병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박수천, 「창강 김택영 한시의 문학과 그 시대적 의미」, 『石堂論叢』 64, 동아대

- 학교 석당학술원, 2016.
- 양 설, 「金澤榮의 중국 망명기 交遊詩 연구 - 張騫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오윤희, 「창강 김택영론 - 그의 역사의식과 문장보국을 중심으로」, 『教育論叢』 3, 東國大學校教育大學院, 1983.
- \_\_\_\_\_, 「창강 김택영 시문학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_\_\_\_\_, 『창강 김택영 연구』, 국학자료원, 1996.
- \_\_\_\_\_, 「滄江 金澤榮과 근대시인의 反復修辭法」, 『東方學』 8, 韓瑞大學校 附設 東洋古典研究所, 2002.
- 이병주, 『한국한시선』, 탐구당, 1965.
- 이은영, 「20세기 초 유교지식인의 망명과 한문학 - 서간도 망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의강, 「金澤榮의 중국 망명 원인에 대하여 - 시작품을 분석의 주요 대상을 삼아」, 『東方漢文學』 22, 東方漢文學會, 2002.
- 이혜순, 『20세기 전반기 한국사회의 연구』, 백산자료원, 1999.
- 정재철, 「김택영의 문학론과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주승택, 「개화기의 한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최영옥, 「滄江 金澤榮의 중국망명과 출판사업 의식」, 『韓國思想史學』 40, 한국사상사학회, 2012.
- 호광수, 「滄江 金澤榮의 망명 한시에 나타난 상황성」, 『中國人文科學』 32, 中國人文學會, 2006.
- 황재문, 「김택영 시에 나타난 유민의식」, 『韓國漢詩研究』 13, 太學社, 2005.
- \_\_\_\_\_, 「전통적 지식인의 망국인식 : 김윤식, 김택영, 박은식의 경우」, 『韓國文化』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Abstract

### *A Study of Kim Taekyoung's Social Intercourse Poetry*

/ Lee Deok-hyang\*

This writing studies Changgang, Kim Taekyoung's poetry specially when he stayed in China writing and corresponding with his favorite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s writers and generous sponsors. As the last generation of Sino-Korean Poetry literature, Kim Taekyoung succeeded historic Sino-Korean Poetry and rounded off his writings brilliantly. His poetry are given attention to other writers because reflect his writings reflect the spirit of the age. His writings contained those years'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Ironically Chinese literature was on the decline when he was stayed in China and published a collection of Sino-Korean Poetry.

Kim Taekyoung's attitude was quite different from others in accepting country's ignominy of being conquered by Japan. He left homeland and stayed China until his death to avoid Japanese colonial rule. The point here is that he continuously issued many history books and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Most importantly he corresponded with Chinese writers and wrote the Chinese poets. It showed high level of his ability to create Sino-Korean poets. Such activities demonstrate that most Joseon scholars level was the same, and it means a lot.

Kim Taekyoung's social intercourse poetry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and values both quantity and quality. Corresponding poetry with sponsors and Chinese writers shows traditional composition, and it contained their true friendship, new culture and diaspora's fate that reflected his literature world. Changgang shared his feelings and agonies with various people such as Zhang Qian, Jang Charl, You Weol, Doh Ki, Jang Hyoseo, Bi Bumgu, Joo Jinki etc. by corresponding with poems. Social intercourse poetry with neighbors and his colleagues wrote Kim's warm heart and considerate understanding toward neighbors. Compared with the former, the latter revealed more authenticity and human truth so that readers can feel more literary sensitivity of Kim Taekyoung's poetry.

---

\* Ph.D.Candidate, Kongju National Univ. / urimalgul@hotmail.com

Kim Taekyoung left Diaspora literature which had been no parallel case in Sino-Korean poetry history. Kim Taekyoung's Chinese poetry broaden Sino-Korean Poetry horizons in the era. His poetry can be evaluated to accomplish a decisive role in internationalization of Sino-Korean Poetry.

**【Key words】** Kim Taekyoung, Social Intercourse Poetry, Diaspora, Bi Bungu, Joo Jinki

투고일 : 11월 16일, 심사완료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